

# 최초의 동북아 탐험가 - 서복의 이야기

## The earliest navigator in Northeast Asia

### —Xu Fu

류 권 귀\*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徐福과 濟州島의 관계 |
| II. 徐福에 관한 중국역사의 기록 | V. 결론           |
| III. 徐福의 항해 원인      | <참고문헌>          |

#### < 국문 초록 >

2200여년전에 서복이란 사람은 동해로 항해한 것은 동북아 지역에서도 가장 일찍 시작한 것으로서, 최초의 탐험가로 할 수 가 있다.진시황제때 항해사인 서복이 왜 동해로 항해한 것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은 다 東海求仙이라고 하지만 이 글에서는 서복은 求仙이란 것을 핑계로 일본에 가서 식민하고 피난하였을 것이라 주장한다. 서복은 제주도와 관계도 매우 친밀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西歸의 지명도 있고 정방 폭포의“徐福过之”란 조각도 있다. 漢孛山란 이름은 李朝초기부터 사용하기 시작하고 그 이전의 이름은 瀛洲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많다.

또한 제주도의 옛날 왕국인 탐라의 기원설에 의하면 서복과 깊은 관계도 있다고 주장한다.따라서

\* 중국교육부에서 파견되어 제주한라대학교 복지행정과재직

필자는 서복은 당시에 진시황제를 피하기 위해 일본에 가는 길에 제주도를 경과한적도 있고 耽羅國의 기원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을 맺었다.

핵심어: 漢拏山(한라산), 瀛洲山(영주산), 徐福(서복), 李朝(이조), 耽羅(담라), 西歸(서귀)

## I. 서론

서귀(西歸)란 지명의 유래에 관해 생각해 보면 한국어에서 “서”란 이 글자를 한자“西(서쪽, 방향용어)”도 번역할 수 있고 “徐(서씨, 사람의성씨중에하나)”로 번역할 수도 있다. “서”에 관한 한자의 번역 결과는아래와같다.

서—徐<sup>1)</sup>    서—西<sup>2)</sup>    서—書<sup>3)</sup>

즉 여기에 있는 서귀포(西歸浦)는 徐歸浦로도 번역할 수 있다. 그렇다면 徐歸浦의 徐는 누구인가? 西歸浦의 西歸(서쪽으로 돌아가다)는 무슨 의미인가? 이 사람은 바로 徐福(서복, 또한 徐市 서술)이다. 역사에 기록된 서복은 진시황28년에 첫 번째 동해로 향하여 항해하고 진시황37년에 다시 한번 항해하였다. 서복은 진시황제에게 동해에 있는蓬萊、方丈、瀛洲산들에서 살고 있는 신들은 불로불사의 신약이 있다고 알려주고 시황제에게서 많이 지지를 받고 於是遣徐市發童男女數千人，入海求仙人을 나갔다. 그리고 두 번째 다시 항해했을때도 시황제는遣振男女三千人，資之五穀種種百工而行을 시켰다. 그리고 시황제가 서복을 3개월동안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아서 시황제는 순찰 도중에 사망했다. 중국을 통일한 千古一帝<sup>4)</sup> (천고일제, 중국의 첫 번째 황제란 뜻이다) 인 시황

1) 한국의 서씨는 본이 이천(利川)이다.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는 153본,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에는 176본이 기재되어 있다.

2) 고대 중국에서 “西”의 원래 의미는 새둥지를 의미한다, 石定果、羅衛東《漢字的智慧(한자의지혜)》, 북경언어대학교 출판사, 2003년

3) 미술대사전에서는 “書”는 서예를 의미한다.

제는 무한한 권력을 움켜쥐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장악한 인물이지만 자신의 생명을 어쩔 수 없었고 십여년동안의 신약을 구하지만 결국 자신이 믿은 방사인 徐福得平原廣澤, 止王不來라고 말했다.

역사학자들이 서복에 관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바로 서복이 도대체 어디에 도착하였는가하는 것이다. 대부분 학자들은 일본이라고 주장하는데, 일본이 가장 많은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서복은 한반도에서 생활하면 아무래도 위험하다고 여겼다. 그이유는 시황제의 세력은 한반도까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당시 한반도는 시황제의 세력 도달범위이란 뜻이다. 그리고 당시의 항해기술이나 선박의제조 기술도 발달하지 못해서 가까운 곳이라야 쉽게도 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이상적인 곳은 바로 바다로 에워싸고 있는 일본이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서복은“東渡求仙”보다 다른 목적이 있었고 그것은 판곳에서 식민한 것이라고 말하면 더 맞을 것 같다. 왜냐하면 신선들에게 3000명의동남동녀가 왜 필요한 가? 신선은 다른 인간들의 복무를 필요로 하는가? 또한 식량등 많은五穀과 百工도 가지고 갔는데 신선은 음식물이나 복장등이 필요없는 존재가 아닌가? 다시 말하면 서복이 사람을 데리고 간 이유는 求仙이 아니라 시황제를 피해 해외에서 식민한 것이다. 따라서 일본에 지금까지 있는 齊室<sup>5)</sup>나秦住<sup>6)</sup>는 바로 증거이다.

위에 얘기한 것처럼 서복이 위험을 피해 반드시 섬과 같은 곳에 도착해서 살아간 것이며 제주도에 도착했을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의 서귀포 이름의 유래는 바로 서복과 관계가 있다는 전설도 있고 정방폭포 절벽에 조각된 글자도 있다. 서귀의 뜻처럼 서복이 서쪽에 있는 나라에 돌아간 것이고 이점으로 인하여 서복은 첫 번째 항해 나갔을 때 바로 제주도를경과한 것이다. 그리고 귀국한 길에서 정방폭포를 보고 감탄하여서 절벽에 글자<sup>7)</sup>를 남겼다. 또 하나의 증거는 바로漢擎山과 瀛洲山<sup>8)</sup>의 이름 유래이다. 오늘의 사

4) 《藏書·世紀列傳總目》에서 나오고명나라의사상가인李贄는시황제에게제출된평가이다.始皇帝, 自是千古一帝也

5) 일본에있는신사에 (우리나라사당과비슷한것, 일본 황실의祖上이나일본인 固有의신앙 대상인신또는국가에 공로가큰사람을신으로서모신사당) 있는방의이름이다.이런방은참배하는사람은제계하기를곳이다.이중에齊는 바로서복의고향인齊國 (제나라) 이다.

6) 17세기 일본학자인 新井白石은《同文通考》에서복은일본에도착한곳을설명한다.今熊野附近有地曰‘秦住’, 土人相傳爲徐福居住之舊地. 由此七八里有徐福祠, 其間古木參差, 相傳爲其家臣之冢. 如斯旧迹, 今猶相傳, 且又有秦姓諸氏, 則秦人之來往乃必然之事也.

용하고 있는 이름은 漢拏山이지만 옛날에 이름은 瀛洲山이라고 주장한학자들도 많다. 「史記」의 기록에 의하면齊人徐市等上書, 言海中有三神山, 名曰蓬萊、方丈、瀛洲, 仙人居之이란 말이 있다. 즉 당시서복은 일본에서 진나라로 귀국하는 도중에 제주도를 발견하고 정방폭포에 도착하고 부하를 이끌고 漢拏山에서 신약을 찾았다는 것이다. 또한가지는 서복은 耽羅國의 기원과 관계가있다는 것이다. <瀛洲志(영주지)>에 따르면 고을라의 15세손 고후(高厚)·고청(高淸)·고계(高季) 삼형제가 신라에 입조한 기록이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며 고후의 조상인 고을라는 적어도 고후로부터300-450년<sup>9)</sup> 전의사람이다. 이시대의 역사 기록이 없지만 삼신인의 신화를 보면 맞출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삼신인은 바로 서복이 일본으로 가는 도중에 제주도에 남겨둔 사람일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필자는 이같은 가정하에 이 글을 전개하였다. 제 I 항에서 먼저 徐福에 관한 역사 기록을 설명하고 분석한 후에 그는 東渡의 원인을 찾아보았다. 다음에 徐福과 제주도의 인연을 설명하였다. 제 II 항은 徐福에 관한 중국 역사의기록이고 주로 중국의 「史記」 (사기) 에 따라 분석하고 徐福을 소개한 것이다. 제 III 항은 徐福의 항해원인으로서 東海求仙을 핑계로 시항제를 피하고 해외식민의 사실을 분석한 것이다. 제 IV항은徐福과 濟州島의 관계를 다시 설명한 것이다. 즉 濟州島에서 남겨둔 徐福에 관한 전설이나 실물등으로부터 정방폭포와瀛洲山으로 徐福과 濟州島의 관계를 자세히 분석한 것이다. 제 V 항에서는 위의 분석을 통하여 徐福과 제주도의 밀접한 관계를 제시하였다.

7) 이런 글자는추사인김정희는발견되고탁본을보존한다고한다.

8) 《列子古注今译》 제5권 <汤问篇>에의하여 渤海之东不知几亿万里, 有大壑焉, 实惟无底之谷, 其下无底, 名曰归墟. 八弦九野之水, 天汉之流, 莫不注之, 而无增无减焉. 其中有五山焉: 一曰岱舆, 二曰员峤, 三曰方壶, 四曰瀛洲, 五曰蓬萊. 그리고지금까지한라산근처에있는어떤오름의이름은여전히 瀛洲山이라고한다.

9) 두 세대의나이가보통20-30세이다.중국의경우에는4대백년이라고하고즉한세대는25년이다.

## II. 徐福에 관한 중국역사의 기록

서복, 또는 서불(徐市), 자는 군방(君房). 제나라 낭야(琅瑯: 지금의 강소성 감유현 江蘇贛榆, 일설에는 山東龍口), 진나라 방사. 그는 박학하며 다양한 재주가 있고 의학/천문/항해 등 지식에 통달하였다. 일설에는 병법가 귀곡자의 제자라고도 한다.

서복에 관한 가장 이른 기록은 사마천의 「史記」이며, 진시황본기와 회남형산열전(진시황본기에서는 '徐市'로, 회남형산열전에서는 '徐福'으로 기재)에 기재되어 있다.

「秦始皇本紀」: 既已, 齊人徐市等上書, 言海中有三神山, 名曰蓬萊、方丈、瀛洲, 仙人居之。請得齋戒, 與童男女求之。於是遣徐市發童男女數千人, 入海求仙人。因使韓終、侯公、石生求仙人不死之藥。方士徐市等入海求神藥, 數歲不得, 費多, 恐譴, 乃詐曰: “蓬萊藥可得, 然常為大蛟魚所苦, 故不得至, 原請善射與俱, 見則以連弩射之。”始皇夢與海神戰, 如人狀。問占夢, 博士曰: “水神不可見, 以大魚蛟龍為候。今上禱祠備謹, 而有此惡神, 當除去, 而善神可致。”乃令入海者齋捕巨魚具, 而自以連弩候大魚出射之。自琅邪北至榮成山, 弗見。至之罘, 見巨魚, 射殺一魚。遂並海西。

「秦始皇本紀」 기록에 따르면, 진시황은 불로장생하기를 희망하였고, 진시황 28년(BC219년)에 서술은 바다에 봉래, 방장, 영주산이 있는데 신선이 있다는 조서를 올렸다. 이에 진시황은 3년의 양식, 의복, 약품과 농경기구를 준비하여, 서술(즉서복)과 동남동녀 수천명을 파견하였다. 진시황 37년(BC210년), 진시황이 동방을 순행하면서 낭야에 이르렀을 때, 서술은 항해도중 바다에서 거대한 상어 가방해하여 더 이상 항해를 하지 못하였다고 보고하고, 화살 부대를 보내어 거대한 상어에 대응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진시황은 그 요청을 윤택하여 화살 부대를 파견하였고, 서복은 다시 무리를 이끌고 항해하였다.

「淮南衡山列傳」중에 伍被는 劉安에게 얘기한것은 又使徐福入海求神異物, 還為偽辭曰: 臣見海中大神, 言曰“汝西皇之使邪”臣答曰“然”“汝何求”曰“願請延年益壽藥”神曰“汝秦王之禮薄, 得觀而不得取”即從臣東南至蓬萊山, 見芝成宮闕, 有使者銅色而龍形, 光上照天。於是臣再拜問曰“宜何資以獻”海神曰“以令名男子若振女與百工之事, 即得之矣”秦皇帝大說, 遣振男女三千人, 資之五穀種種百工而行。徐福得平原廣澤, 止王不來。

「淮南衡山列傳」에 기록된 내용은 서복이 동해에서 다시 중국으로 돌아와서 시황제에게 얘기한다. 바다에 계시는 신선을 보고 신선은 汝西皇之使邪(당신은 서쪽에 계시는 황제의 사신이냐)와 汝何求(당신은 뭘 찾으러 오냐)냐고 물었다. 그리고 신선은 다시 말한 것은 汝秦王之禮薄, 得觀而不得取(당신의 왕은 귀중한 예물을 증정하지 않아서 신약을 구경만 할 수 있다)이다. 서복은 다시는 宜何資以獻(어떤 것들을 바쳐 드려야 하는 가)는 물음에 신선은 以令名男子若振女與百工之事, 即得之矣(양가의 남자와 여자, 그리고 여러 가지의 수공업자들을 주면 신약을 받을 수 있다)다고 대답한다. 시황제는 매우 기뻐서 동남동녀 3000명과 五穀과 百工을 주고 서복은 平原廣澤에 도착한 후에 거기서 왕이 되어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太平廣記·徐福」과 「十洲記」에서는 서복을 ‘서예(徐輓)’로도 쓴다고 설명하면서 자는 군방, 제나라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다.

「太平廣記·徐福」에 내용은 徐福, 字君房, 不知何許人也。秦始皇時, 大宛中多枉死者橫道, 數有鳥銜草, 覆死人面, 皆登時活。有司奏聞始皇, 始皇使使者齎此草, 以問北郭鬼谷先生。雲是東海中祖洲上不死之草, 生瓊田中, 一名養神芝, 其葉似菰, 生不叢, 一株可活千人。始皇於是謂可索得, 因遣福及童男童女各三千人, 乘樓船入海。尋祖洲不返, 後不知所之。

「十洲記」중에 祖洲에 관한 기록이 아래와 같다. 祖洲近在東海之中, 地方五百里, 去西岸七萬里。上有不死之草, 草形如菰苗, 長三四尺, 人已死三日者, 以草覆之, 皆當時活也, 服之令人長生。昔秦始皇大苑中, 多枉死者橫道, 有鳥如鳥狀, 銜此草覆死人面, 當時起坐而自活也。有司聞奏, 始皇遣使者齎草以問北郭鬼谷先生。鬼谷先生云: “此草是東海祖洲上, 有不死之草, 生瓊田中, 或名為養神芝。其葉似菰苗, 叢生, 一株可活一人。”始皇於是慨然言曰: “可採得否?”乃使使者徐福發童男童女五百人, 率攝樓船等入海尋祖洲, 遂不返。福, 道士也, 字君房, 後亦得道也。

「太平廣記·徐福」과 「十洲記」의 내용을 분석하면 사실은 「史記」의 내용은 비슷하다. 시황제 때 길에서 죽은 사람이 많다. 까마귀같은 새가 풀 한그루를 물고 와서 죽은 사람의 얼굴에 두자마자 다시 살아난다고 말한다. 시황제는 귀곡자에게 물었는데 東海祖洲에서 자라는 풀이 있고 이름은 養神芝라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시황제는 서복에게 동남동녀를 주고 그들은 樓船을 타고 갔지만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점은 모든 책에서 서복의 생몰연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서복이 바다를 항해하여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대만 혹은 오키나와, 또는 미국을 말하기도 하는데, 대다수는 일본이라고 생각한다. 서복의 일본 도착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은 오대후주시대 义楚<sup>10)</sup>(의초,스님)이다.

의초 스님은 자기의 저작인 「釋氏六帖」에 “日本國亦名倭國，在東海中。秦時，徐福將五百童男、五百童女止此國，今人物一如長安。……又東北千余里，有山名‘富士’亦名‘蓬萊’……徐福至此，謂蓬萊，至今子孫皆曰秦氏”라고 한다.

이 내용은 일본을 왜국이라 하는데 동해에 있다. 진나라때, 서복이 500동남과 500동녀를 데리고 왜국에 갔다. 오늘까지 거기에 있는 인물은 長安과 똑같다. 동북에 부사(富士: 후시)라는 산이 있는데 봉래산이라고도 한다. 서복이 그 산에 갔으며, 그 후손을 진씨라 부른다.

서복에 관한 것들을 먼저 표-1로 한번 보자.

〈표-1〉

성명	徐福서복, 또는 徐市 <sup>11)</sup> 서술라고 표기		성별	남성
생몰연대	미상	활동 기간	전국시대 말기, 진시황 시기, 제나라 출신	
직업	術士 <sup>12)</sup> (술사, 또는 方士라고 함), 항해가, 탐험가, 일본神武天皇 (신무천황) ? 紅帶紫衣仙人 (홍대자의선인) ?			
국적	齊國 (제나라) 、秦朝 <sup>13)</sup> (진나라)			
항해기록	제1차 BC219년, 제2차 BC210년이다			

10) 의초는 오대후주시기승려, 저작인 《釋氏六帖》에서 기록된 내용중에 서복의 도달한 곳이 일본 이라고 명확히 기술. 제21권 “國城州市部” 중에 “日本”조

11) 위에 있는 내용은 대략 중국의 역사기록에 의하여 만들었다. 서복이란 사람은 두 개이름 이었다. 하나는 徐福이고 하나는 徐市이다. 왜냐하면 그시대진 시황이 중국을 통일한지 얼마 안되어서 춘추전국시대 수많은 나라가 있어서 자기가 스스로 만든 글자도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서복의 한자 이름도 두 가지가 있는 것도 정상적인 것이다.

12) 방술(方術)이란 자연현상에서 규칙성을 이끌어내고 그러한 규칙에 의해 길흉을 점치거나 불로장생을 추구하는 학문들의 통칭이다. 방술을 닦는 사람을 방사(方士)라 한다

13) 한국어로는 國과 朝는 다나라로 번역하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정통의 위치를 차지한 나라는 朝를 사용하고 지방의 제후국이나 비정통의 나라는 國을 사용함. 진나라는 진시황제가 중국을 통일한 후에 秦朝를 불리게 되고 통일전에는 秦國이라고 불린다.

### Ⅲ. 徐福의 항해 원인

제Ⅱ항에서 언급한 徐福에 관한 역사의 기록을 보면 서복이란 사람은 동해로 항해한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서복은 왜 일본에 갔는지? 서복이 일본에 간 이후 왜 글자같은 것은 남지 않은 가? 하는 점이다.

먼저 서복이 바다를 건넌 원인을 분석해 보면, 求仙人不死之药(선인을 찾아 불사의 약을 구하다)는 것이지만 그 결과는 數歲不得, 費多, 恐譴(수고는 많지만 성과가 없었고 벌책을 당할까 봐). 서복은 자신에게 닥칠 화를 피하기 위해, 진시황에게 다시 제의하여 진시황제의 지지하에 遣振男女三千人, 資之五穀種種百工而行(남녀 3천 명과 곡물을 준비하여 떠났다). 이렇게 생각하며 겉으로 보면 서복이 항해한 이유는 불로불사의 신선의 약을 구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서복은 止王不來(왕이 되고 돌아오지 않다)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다. 즉 만약에 서복이 불사의 신약을 찾지 못하면 秦律(진나라의 법률)에 따라 거짓말을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는 거나 불사의 신약이 효과가 없으면 다 사형에 처해지기 때문이다<sup>14)</sup>.

마비백(馬非百)은 「진집사(秦集史)」에서 “其意初不在求仙, 而實欲利用始皇求仙之私心, 而借其力以自殖民于海外”<sup>15)</sup>. 즉 서복이 일본에 간 이유로 신선을 찾으려 간 것이 아니라 시황제의 사심을 이용하여 해외에 식민지를 건설하려 했다고 주장하였다. 서복이 진나라를 떠나려 했을 때 자신에게 화가 미칠 것을 두려워 한 측면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해외로 백성을 이주시키려는데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귀포 정방폭포에는 ‘遷王過之’<sup>16)</sup> 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여기서 왕(王)이란 진나라왕이 아니라 제나라왕을

14) 「法律答問」의 기록에 의하여 “譽适(敌)以恐众心者, 戮。” 「墨子·号令」도 “譽敌, 少以为众, 乱以为治, 敌攻拙以为巧者, 断。”란 기록이 있다. 즉 헛소리를 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다 사형에 처한다. 서복은 거짓말도 하고 신약도 갖지 못했으니 秦律에 의하면 사형은 틀림없다.

15) 馬非百은 「秦史集」의 인물 전 제18의 徐市에 관한 기록은 아래와 같다. 關於徐福東渡事, 雖不免有轉輾抄襲, 傳聞失實之處, 而否定徐福之有力反證, 則至今尚未之見. 況中日兩國僅隔一衣帶水, 朝鮮半島復突出其間, 其經由朝鮮北部東渡者故不乏人, 而由山東半島經朝鮮南部東渡者亦所在而有. 徐市, 齊人, 習海外事. 然則徐福之東渡, 殆必取由後者之途徑無疑矣. 抑徐福之入海, 其意初不在求仙, 而實欲利用始皇求仙之私心, 而籍其力, 以自殖民于海外. 觀其首則請振男女三千人及五穀種種百工而行, 次則請善射者揣連弩輿具. 人口, 糧食, 武器及一切生產之所資, 無不具備. 353페이지, 中華書局 1982년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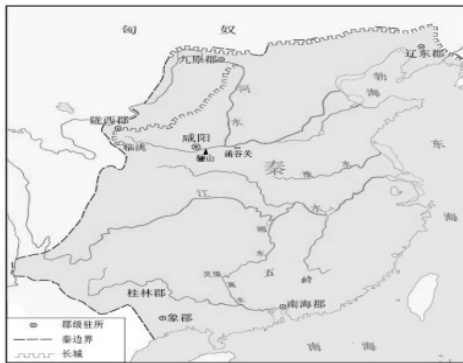
16) 정방폭포 암벽에 새겨두는 글자는 “徐福過之” “徐福過此” “齊臣徐市遷王過之” 등 주장 이었다.



의미한다. 일설에는 일행 중 제나라 양왕의 둘째 아들이 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런 글자를 남긴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일본에서 제나라 부(齊部)라는 칭호는 당시 일본으로 이주한 고대중국인을 뜻한다. 서송 석(徐松石)은 「일본민족의 연원(日本民族的淵源)<sup>17)</sup>」에서 전국시대와 진나라시대 동남 연안 많은 백성들이 일본으로 이주했고 서복과 일행들은 그들 중 하나라는 것이다.“徐福入海東行, 必定真有其事。” 불로초를 구하는 것은 변명이고 실제로는 계획적인 이민계획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한 점이 있는데 즉 어떤 학자는 서복이 몇 년 동안 쓸 수 있는 식량을 많이 준비해서 남아메리카 등 더 먼곳에 갔다고 주장하지만 필자의 관점은 식량을 배를 타면서 먹을뿐만 아니라 씨앗으로 심어야도 한 것이다. 낫선 곳에 가면 平原廣澤이 있지만 재배할 식량씨앗이 있어야 할것이 아닌가? 또한 서복은 시황제를 피해 도망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에도착해도 글자도 금지하고 언어도 바꾸고 토착민들과 비슷한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한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서복入海東行에 관한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이다. 시황제는 죽고 진나라가 멸망한 후에야 글자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림 1-1〉 진나라 때의 강역<sup>18)</sup> 출처:人敎網2010七年級上冊歷史圖片

- 17) 徐松石의 「日本民族的淵源」 86페이지에 의하며 徐福乃自山東出海, 不是去自吳越. 最初自越地移徙日本, 具有相當可觀數目的人民, 大約是鳥田族. 又有記載: 宋太平實字記說, “東海上有野人, 名庚定子, 舊說雲, 昔從徐福入海, 逃避海濱, 亡匿姓名, 自號庚定子, 土人謂之白水郎. 110페이지에 의하며 “徐福入海東行必定真有其事” 111페이지에 의하며 神皇正統記說, “孝靈天王四十五年乙卯, 秦始皇即位. 始皇好神仙, 求長生不死之藥於日本.” 從而證實徐福確實到過日本. 國立北京大學和中國民俗學會民俗叢書2民俗學會 출판
- 18) 秦朝의 疆域은 중국을 통일한 후에 東北地區는 주로 옛 燕國의 疆域範圍를 포함한다. 「史記·匈奴列傳」記載, “燕有賢將秦開, 為質於胡, 胡甚信之, 歸而襲破走東胡, 東胡卻千餘里……燕亦築長城, 自遼陽至襄平, 置上谷、漁陽、右北平、遼西、遼東郡以拒胡” 이 기록을 보며 秦朝의 東北地區는 한반도까지 도달

이 지도를 보며 진나라 때의세력은 이미 한반도에 도달하였다. 辽东郡이란 행정구역이 있어서 즉 진시황제는 만약 서복이 한반도에 있는 것을 알면 병사를 파견하여 한반도 내의 서복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서복에게 가장 안전 한곳은 바다로 에워싸인 섬이 최고이다. 다시 말하면 서복이 일본에 가는 것은 한반도에 있는 것보다 더 안전한 것이다.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첫 번째는 서복이 일본에 정착했음을 추론할 수있다. 「일본고(日本考)」 에서도“秦遣方士徐福将童男女千人入海求仙不得，惧诛，止夷、澶二州，号秦王国，属倭国。”란 기록이 있다. 즉 진나라 방사 서복이 바다를 건너와 신선을 찾았으나 못찾고,이주와 단주(止夷、澶二州)에 이르러 진왕국이라 칭하였고 왜국에 속했다. 두번째는 서복이 일본에 간 이유는 처음에는 求仙人不死之药이가능하지만결국數歲不得，費多，恐譴하기 때문에 시황제에게 偽辭曰：汝秦王之禮薄，得觀而不得取다고 하고 시황제는 다시遣振男女三千人，資之五穀種種百工而行다고 한다.그래서 신약을 구하지 못해서 결국 徐福得平原廣澤，止王不來하게 된다. 즉 서복은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무서워서 많은 생산도구와 사람을 요구하고 해외식민을 한 것이다. 세 번째는 서복은 한번만 항해한 것이 아니고 적어도 두 번 이상 항해하였다. 西歸란 지명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 IV. 徐福과 濟州島の 관계

서복이 10년간<sup>19)</sup> 준비를 했고, 그 자신도 어렸을 때부터 연해안 지방<sup>20)</sup>에서 자라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노선을 선택했다. 충분한 담수와 식량을 공급할 수 있고 큰풍랑을 피할 수 있는 노선을 알아보고서 섬을 따라 항해를 했는데그 노선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추측된다: 고향 북해안의 황하를 따라 동쪽으로 가서 요동반도에서 한반도를 지나 최종으로 일본의九州(규슈)에 도착했다. 서복 집단의 도래는 일본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

할 수 있다.

19) 첫번째 출항은 기원전 219년, 두 번째는 210년,10년의 차이가있다.

20) 서복은 제나라 사람이고 바다 근처에 생활한 것이다. 제나라는 오늘날 중국의 山東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이다.

왔고, 일본은 줄곧 배회하던 원시사회에서 노예사회<sup>21)</sup>로 발전하게 되었다. 앞서 진시황에게 상서했던 내용에 따르면, 서복은 최소 두 번 이상 해외로 나갔으며, 서복이 귀국하던 중간에 들렀던곳이 아마 제주도의 서귀포가 아닐까? 일본에 도착한 것을 제외하면, 제주도에 들렀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림 1-2〉 서복 동해로 나가는 추측한 노선도<sup>22)</sup>

출처:探訪徐福跡,尋找傳說中的長生不老藥「韓國旅遊人文全南」

秦文字与六国文字的对比  
Comparison of Qin Characters and those of Six States

字例	秦	楚	晋	齐	燕
馬	𠩺	𠩺	𠩺	𠩺	𠩺
安	安	安	安	安	安
市	市	市	市	市	市
乘	乘	乘	乘	乘	乘

〈그림 1-3〉 전국시대문자들의비교 출처:安陽中國文字博物館

- 21) 일본 학자인村新太郎의 말에 의하여稻米拯救了日本列島飢餓的人們.無論如何稻米要比其他一切都值得感謝.米與牲畜、貝類不同,可以長久貯藏.不久,村落形成了國家
- 22) 여기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서복은 첫 번째 항해했을 때는 바로 일본에 도착하여 잠시 생활한 적도 있는 것이다. 귀국 도중에 제주도도 지나갔다. 만약 한번도 간적이 없는 곳이라면 수천명의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첫째는 정방 폭포에 남긴 글자이다. 진시황은 중국을 통일한 후에 車同軌, 書同文<sup>23)</sup>을 실시하였는데, 정방 폭포 절벽에 남겨진 글자는 진나라의 표준화된 글자가 아니다. 당시 각나라글자의 특색은 자유롭고 형태의 변화도 많았다. 중앙집권의 붕괴 때문에 중국의 수많은 나라는 각각 글자를 만들어 사용하여 1994년에 冷玉龍이 편찬한 「中華字海」<sup>24)</sup>중의 한자는 놀라울 정도로 많다. 85000자나 수록되어 있다. 이체자의 수량이 가장 많다. 예를 들어 拏와 拿는 바로 이체자의 관계이다. 위의 그림을 보면 당시 각국의 글자를 볼 수 있다. “馬”를 보면 진나라와 제나라의 글자는 가장 비슷한 것 같고 다른 나라들의 글자를 보면 완전히 다르다는 느낌이 든다.



〈그림 1-4〉 서북 전시관에 찍은 사진이고 이 글자는 정방 폭포에 있다고 한다.

서북 전시관에 있는 글자들은 도-4 정방 폭포에 새겨져 있다고 들었다. 그런데 이 글자의 의미에 관한 학자들의 생각이 다르다. 어떤학자는 徐市過之<sup>25)</sup>란 뜻이라 하고 어떤 학자는 徐福過此란 뜻이라하며, 또 어떤 학자는 齊臣徐市 遷王過之<sup>26)</sup>란 뜻이라고 주장

23) 「禮記·中庸」 제28항에 今天下車同軌, 書同文, 行同倫이란 기록이 있고 「史記·秦始皇本紀」에 의하여—法度衡石丈尺, 車同軌, 書同文字

24) 「中華字海」는 가장 많은 한자 가收錄된 독서이고 冷玉龍、韋一心은 편찬되고 中華書局、中國友誼출판사1994년에 출판

25) 서귀포 정방 폭포의 표시판에도 徐市過之란 기록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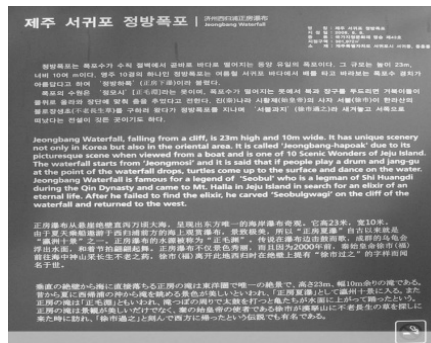
26) 「南海錦山の石刻은徐市이刻石한것이아니다」, 구자성고대사평론집: 具滋聖古代史評論集, 만취당, <http://blog.naver.com/gutten11>. 이 논문을 보고 의혹한 점이 있다. 즉 당시 진시황제는 중국을 통일한 지 몇 년 밖에 안 되어서 徐市은 제나라의 문자로 刻石하면 왜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한다. 이렇게 차이가 큰 관점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당시 전국시대의 글자는 나라마다 각각의 특색이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정방 폭포의 절벽에 제나라 도문(刀文<sup>27</sup>)인 齊臣徐市遷王過之이라는 것을 고증해 보고자 한다.



〈그림 1-5〉 여기서 나오는 한자는 之이고 진시황제 이전에 제나라가 사용한 글자이다.

위에 있는 글자는 진시황 이전에 제나라의 화폐에 새겨져 있는 글자<sup>28</sup>)이다.之 이 글자 암벽에 있는 글자들과 비교하면 암벽에 있는 글자와 비슷한 점이 있다. 옛글자체의 각문을 보면 진시관에 있는 글자는 徐市過之란 글자가 더 맞을 것 같다.



〈그림 1-6〉 정방폭포에서 찍은 사진이고 이 내용에는 徐市過之란 말이 있다고 한다.

27) 齊系문자는齊、魯、邾、滕、薛、莒、杞、紀、祝、倪、任등 나라에서 사용하였으며 전국시대 동쪽의 특색이 있는 문자 體系이다. 글자의 변화도 많고 異體字도 많고 裝飾되는 筆畫도 역시 많다.

[http://blog.sina.com.cn/s/blog\\_ac95bc8901016xb7.html](http://blog.sina.com.cn/s/blog_ac95bc8901016xb7.html)

28) 중국에는 화폐문자란 부른다.

김봉현 「제주지명고」(국서간행회)나 「탐라사 I」에 따르면, 아주 옛날에 제주도는 영주, 혹은 동영주라고 불린다. 한국에 삼신산이란 것은 금강산은 봉래산, 지리산은 방장산, 한라산은 영주산이다. 기원전 221년에 6국을 통일한 진시황은 동해에 3개의 신산이 있고 불로장생의 초약도 있다고 듣고 나서 동남동녀와 함께 徐市(혹은徐福)을 동해로 파견하였다. 徐市은 500명 동남동녀를 데리고 황해를 건너서 오늘의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양아리에 도착한다. 다음에 남쪽으로 항해하여 오늘의 제주도 조천포에 도착한 후에 漢拏山에 올라가 선인초를 따고 나서 정방 폭포에서 徐市過之란 4개 글자를 각자하였다. 후인들은 그들이 떠난곳을 西歸浦(서귀포, 서쪽으로 귀국한 포구)라 이름 지었다. 사실상 한국말 중에 西와 徐는 다“서”로 표시하니까 西歸浦는 徐歸浦일 가능성도 있다. 徐市는 西歸浦에서 동쪽인 일본도 갔다왔다. 비로소 선인초를 찾았는지 모르지만 조천포와 서귀포에 남은 각자가 대대로 전해내려 온다.

「齊齋集제재집」에 의하면, 西歸浦沿邊有峭壁, 不啻數千仞, 下臨滄海, 鯨濤洶湧, 世傳, 壁半有秦方士徐市所刻字痕雲, 先是牧使白樂淵巡行到此, 人以此說告之, 遂命自壁上以長繩縋, 一人下垂, 引之摸其字跡而還, 蓋字體如科斗雕蟲者, 凡十二個字, 而不可解得雲。

서귀포 의글귀는 진나라 서술이 새겼다고 한다. 목사 백락연이 이곳을 순행하다가 글씨에대한 이야기를 듣고 줄을 매고 내려가 그 글씨를 확인하니, 올챙이와 벌레처럼 생겼던 12자글자인데 해석할 수 없었다고 한다.

두 번째는 한라산의 옛이름에 관한 것을 토론해야 한 것이다. 즉 한라산은 영주산<sup>29)</sup>이라고 부른 것이다. 고려사 탐라현조에 관한 기록은 한라산이지만 이조시대 많은 학자나 문인들은 여전히 영주산이라고 부른다. 영주산대총도(瀛洲山大總圖)이지도는 조선시대의 회화식지도의모습을 엿볼 수 있는 유물로 제주도 중심에 있는 영주산(瀛洲山: 봉래·방장·영주 삼신산의 하나, 현재의 한라산)을 회화식으로 그려냈다. 지도 상단에는 해서(楷書)로 ‘영주산대총도(瀛洲山大總圖)’라고 썼고 그 아래에는 제주도에 대한 인문지리적인 내용을 기술하였다. 제주도를 중심에 그리고 주변도서(島嶼)까지 그렸다<sup>30)</sup>.

29) 지금은 제주도서귀포시표선면성읍리에있는오름의 이름은아직도영주산이라고한다.

30) 출처:국립고궁박물관, 그리고 ‘첫공개된18세기제주도지도’란연합뉴스도나왔다(2008-10-31)

李朝의 학자들의 문학 작품은 이런 관점도 있다.

金緞는 <여산기>중에 이런 기록이 있다. 余嘗聞漢拏山，在於海中，願一登臨，以遂平生，將游之志。而不可得矣。(\*\*\*)竊自語曰，世之所謂瀛洲者，即此山，而居於三山之一。 예전에한라산은 바다에 있다고 들었고 한번 등산한 것은 자기 평생의 포부이다(\*\*\*)세인들은 언급한 瀛洲는 바로 이 산이다. 삼신산중에 하나이다.

崔益鉉의<여한라산기>에 의하며 비슷한 내용이 있다. 余得罪朝廷，貶於耽羅，日與島人語及山水。余曰：漢拏名勝，聞於天下，而考諸邑志，聽於人言，觀者甚鮮(\*\*\*)世所稱瀛洲，而被於三山之一也。豈常調凡人，所可容易遊覽也，余聞之不覺瞿然。 죄를 받고 탐라에 떨어뜨린후에 매일 도민과 산수를 얘기한다. 漢拏는 天下 명승인데 진짜 가 본 사람이 적다. 세인들은 말한 삼신산 중에하나 인瀛洲 때문에 凡人들은 쉽게 등산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위에 많은 역사 기록이나 전설이나 문학작품이나 총결하고 나서 우리는 아래와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즉 漢拏山の 옛이름은 瀛洲山이고 중국 전설 중에 삼신산의 하나이다. 위에 있는 정방 폭포암벽에 조각과 여기에 영주산에 관한 연구한 후에 결론은 서복은 제주도에 도착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또 한가지를 토론했어야 한 것은 탐라국의 기원에 관한 것이다. 「高麗史고려사」 耽羅縣조에 의하며 耽羅縣在全羅道南海中，其古記雲，大(太)初無人物，三神人從地聳出，長曰良乙那，次曰高乙那，三曰夫乙那，三人遊獵荒僻皮衣肉食。一日，見紫泥封藏木函浮至於東海濱，就而開之，函內又有石函，有一紅帶紫衣使者隨來。開石函出現青衣處女三及諸駒犢五穀種。乃曰，我是日本國使也，吾王生此三女，雲西海中嶽降神子三人，將欲開國而無配匹，於是命臣侍三女以來，而宜作配以成大業，使者忽乘雲而去，三人以年次分娶之，就泉甘上肥處射矢卜地란것이다.

「高麗史고려사」 지리지 탐라현의 이 기록에 따르면, 동해 벽랑국에서 온 3명의 공주와 삼신인이 결혼하여 지금의 제주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 동해 벽랑국은 어떤 나라인가? 「瀛洲志영주지」에 따르면 삼성혈에서 나온 고·양·부3인은 동해벽랑국(碧浪國)에서 온자니(紫泥)로 봉한 목함(木函)에서 나온 삼신녀를 맞아 혼인했는데, 이 벽랑국은 일본으로 알려져있다. 한편<동문선>에 실린 성주고씨가전(星主高氏家傳)에도 역시 삼신인이

일본국의 딸3인과 혼인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벽랑국이 일본이라는 것에 대해 필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일본이란 국호는 중국隋唐시대 (기원581년부터) 이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日本考<sup>31)</sup>」에 따르면“日本, 古倭奴國, 依山島為城邑, 在百濟、新羅東南, 地形類琵琶, 東高西下, 東西數千里, 南北數百里”라 하였다.

「舊唐書」卷一九九의東夷日本國傳에 의하면“日本國者, 倭國之別種也。以其國在日邊, 故以日本為名。或曰: 倭國自惡其名不雅, 改為日本。或云: 日本舊小國, 并倭國之地”라하였다. 「舊唐書」에 왜국과 일본국 관련 기록이 있으며 중국 역사상 일본이란 이름은 이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新唐書」의東夷列傳에도비슷한기록도있다.“咸亨元年 (670년), 遣使賀平高麗。後稍習夏音, 惡倭名, 更號日本。使者自言, 國近日所出, 以為名。或雲日本乃小國, 為倭所並, 故冒其號”라 하였다. 여기서도 일본사람은 倭란 국호를 싫어해서日本으로 바꿨다고한다.

또한 「新唐書」의東夷列傳은 탐라에 관한 기록도있다.“龍朔初 (661年), 有儋羅者, 其王儒李都羅遣使入朝, 國居新羅武州南島上, 俗樸陋, 衣大豕皮, 夏居革屋, 冬窟室。地生五穀, 耕不知用牛, 以鐵齒杷土。初附百濟。麟德中, 酋長來朝, 從帝至太山。後附新羅”。여기서 소개된 탐라는 이미 왕도 있고 돼지도 키우고 곡물도 재배했다.

위의 기록을 보면 일본이란 국호가 사용되었을 때에 탐라국은 이미 왕(儒李都羅)도 있었고오곡도 심고 백제와신라에 종속되어 있었다. 따라서 벽랑국을 일본국이라고 해서는 안 될 것같다. 만약 벽랑국이 일본이라면 그 당시에는 중국 당나라때이어야 하는데, 그때 탐라국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 이미 농경사회가 되었다.

따라서 일본국에서 온 공주와 사신이라는 기록은 문제가 있고 오히려 서복은 제주도에 도착하고 일부분의 동남동녀를 남기는 것은 더 믿음직한다. 이상과 같은논술에 따라 서복은 제주도를 지나간 적이 있고 배를 타고 머나먼 곳으로 향해 가는 길에 피곤한 사람들은 배에서내렸들 가능성도 매우 크다. 또한 당시 서복은 오곡식량등 다 가지고 있는데 미리 배에서 내린 사람들에게 오곡의 종자를 줄 수도 있지 않았을 까 싶다<sup>32)</sup>.

31) 「日本考」, 제1페이지의기록이다.

32) 또한서복은紫衣를입었을가능성도매우크다. 「韓非子」에“齊桓公好服紫, 一國盡服紫。當是時也, 五素不得一紫。桓公患之, 謂管仲曰: 寡人好服紫, 紫貴甚, 一國百姓好服紫不已, 寡人奈何”와같은기록을보면춘추시대의제나라사람은紫貴甚을불구하고이미紫衣를입었다.



## V. 결 론

어떤 학자는 삼신산은 일본을 가르친다고 한다. 일본에는 서복에 관한 많은 유적들이 있고, 서복이 상륙한 곳(徐福登陸地), 서복사, 서복총, 서복우물 등이 있다. 좌하시(사가시), 신궁시등은 서복이 왔던 지방이라고 전해진다. 그러나 어떤 학자는 서복의 최종 목적지는 한국이라고 한다. 한국 역시 삼신산과 서복이 온 전설이 있고, 활동한 유적이 남아 있다. 이 외에도, 남양(南洋), 또는 해남도 또는 아메리카에 갔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중국 전국시대부터 특히 진나라와 한나라때에 왕이나 황제들은 불사의 약을 구하는 것에 열중하였다. 수백년동안에 동해로 수많은 방사들을 파견하고 서복처럼 많은 동남동녀와 수공업자들을 끌고 몇 십 심지어 백 척이 넘는 배들을 타고 바다로 간 것이었다. 그리고 그 당시의 항해기술을 고려하면 가장 안전한 노선은 바로 한반도 서해안에 따라가는 것이다. 오늘까지 한반도와 제주도에 남아 있는 조각이나 전설은 바로 그 증거이다<sup>33)</sup>.

서복은 제주도를 지나간 적이 있고 정방 폭포를 보고 절경을 감탄하여 “徐福過之”란 글자를 남겨둔 것이다. 또한 학자들의 고증에 의하여 한라산의 옛이름은 영주산이다. 다시 말하면 영주산은 중국전설중의 삼신산과 관계도 있고 서복은 이 산의 정상에 오르고 불사의약을 찾은 것이다. 또한 제주도에 도착하고 일부분의 동남동녀를 남기는 서복은 紅帶紫衣의 사신이나 신선의 모습과 더 닮고 더 믿음직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번째는 서복은 역사상 실제로 존재한 인물이고, 신화와 전설상의 허구의 인물이 아닌 실제로 활동한 인물이다. 그렇지 않다면, 한중일3국에 동시에 기록되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서복은 바다를 건넜고, 여러번 바다를 항해했다. 역사상 기록과 한국과 일본의 유적들을 보면 유추할 수 있다. 서귀포의 지명에서 유추할 수 있고, 서복은 태국에도 최소 한번은 갔었다.

---

33) 남해금산, 거제해금강, 서귀포정방폭포암벽에 새겨놓은 글씨를 말한 것이다.

세번째는 서복은 분명히 한국과 일본에 왔었다. 한국과 일본의지명에서 유추할 수 있으며,이외, 《삼국지(三國志)》에서 황룡2년,손권은 위온과 제갈직을 이주(夷洲)와 단주(亶洲)로 보냈다고 한다. 단주는 바다 넘어있는데, 장로가 전하기를 진시황은 방사 서복을 동남동녀 수천명과 같이 바다로 보내 신산과 선약을 구했으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주(夷洲)는 대만을 가르키고, 단주(亶洲)는 아마 일본을 가르킨다고 볼 수 있다<sup>34)</sup>.

네 번째는 현지 문화,경제,정치적 발전을 촉진하고, 특히 일본의 문화에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다 주었다. 예를 들어, 석시시대 新石器时代<sup>35)</sup>에서 노예시대로 발전하는데는 수천년이 필요하며, 이집트와 바빌론 등 나라들은3천여년의 시간이 필요했는데, 일본은 백년도 안되는시간에 석시시대에서 노예시대로 발전했다. 중국은 약BC2100년전 노예제 사회로 진입하는데, 기전의 신석기시대에서2천여년이 지난 후였다. 서복일행은 일본에 문명개화를 가져다주었다. 어업과 농경기술, 청동무기, 항해지식등을 일본에 전수해 주었다.

마지막은 각종족의 융합을 실현하여, 한·중·일3국인이 비슷하게 하였다. 서복집단뿐만 아니라 그 당시 수많은 중국사람들은 일본에 가서 같이 생활한 기록이 많다. 예를 들며, 서진태강10년(기원289년),한헌제의 현손 유아지(劉阿知)는 천하가 혼란함을 보고, 남녀2천여명을 이끌고 바다를 건넜다. 당시 일본 응신천황이 재위했으며, 유아지를 조정의 신하로 불러서,동한사주(東漢使主)로 임명하였는데, 아지왕 또는 아지사주로 칭하기도 한다<sup>36)</sup>. 제주3신인의 이야기에 관해,앞서 언급한 동해 벽랑국의 기록에서 일본 혹은 중국의 백성이 제주로 왔음을 볼 수 있다.

34) <三國志>에의하면 黃龍二年, (孫權)遣將軍衛溫、諸葛直將甲士萬人, 浮海求夷洲及亶洲。亶洲在海中, 長老傳言: 秦始皇帝遣方士徐福將童男童女數千人入海, 求蓬萊神山及仙藥, 止此洲不還。世相承有數萬家, 其上人民, 時有至會稽貨布, 會稽東縣人海行, 亦有遭風流移至亶洲者。所在絕遠, 卒不可得至, 但得夷洲數千人還이다고한다.

35) 일반적인 관점은신석기시대의3가지특징이있는데간석기를만들고사용하기,도기를발명하기,농업과 목축업이 나타난것들이다.중국<周易·系辭下第八>에의하여包犧氏沒, 神農氏作, 所木為耜, 揉木為耒, 耒耨之利, 以教天下, 蓋取諸益란 기록을보면그당시는중국이미농업을시작한것이다.

36) <大日本史>卷之一百七·列傳第三十四에의하여阿知使主, 漢靈帝之曾孫也。及漢禪魏, 因神牛教, 出往帶方, 得保帶瑞, 其象類宮城, 乃建國邑, 保其民庶。後告父兄曰: 吾聞東國有聖主, 盍往歸焉。若久居於此, 則恐取覆滅。率子都加使主, 女弟迂興德, 及七姓十七縣人口, 歸化。實應神帝二十年也。詔賜高市郡檜前村而居焉이다고한다.

## [참고문헌]

- 「耽羅史 I (탐라사 I)」. 濟州史定立事業推進協議會 및 濟州特別自治道, 82-89
- 「高麗史」. 地理志耽羅縣條
- 만취당. 南海錦山の石刻은徐市이刻石한것이야이다. 「구자성고대사평론집:具滋聖古代史  
評論集」 <http://blog.naver.com/gutten11>
- 오창명(2008). 영주산대총도(瀛洲山大總圖)의제주지명. 국립고궁박물관한국지명학회. 地  
名學제14집. 81-99
- 徐松石(1988). 「日本民族的淵源」. 國立北京大學和中國民俗學會-民俗叢書2民俗學會影  
印86, 110, 111
- 《史記·匈奴列傳》記載, “燕有賢將秦開, 為質於胡, 胡甚信之, 歸而襲破走東胡, 東胡  
卻千餘里……燕亦築長城, 自造陽至襄平, 置上谷、漁陽、右北平、遼西、遼東郡  
以拒胡”
- 明李言恭、郝傑(1983). 「日本考」. 41-42. 中華書局
- 「禮記·中庸」. 第二十八章: “今天下車同軌, 書同文, 行同倫。” 「史記·秦始皇本紀」. “一  
法度衡石丈尺, 車同軌, 書同文字。”
- 冷玉龍、韋一心(1994). 「中華字海」. 中華書局, 中國友誼出版社
- 義楚《釋氏六帖》 제21권 “國城州市部” 중에 “日本” 조
- 齊系文字介紹及四字刀 “齊之法化” (春秋時期齊國刀幣一)  
[http://blog.sina.com.cn/s/blog\\_ac95bc8901016xb7.html](http://blog.sina.com.cn/s/blog_ac95bc8901016xb7.html)
- 吳良寶(2006). 「先秦貨幣文字編」 97, 106, 138
- 石定果、羅衛東(2013). 「漢字的智慧(한자의지혜)」. 북경언어대학교
- 《孟子·滕文公上》禹八年於外, 三過其門而不入。《呂氏春秋·察今》有過於江上者, 見  
人方引嬰兒而欲投之江中。
- 馬非百(1982). 「秦史集」. 人物傳第十八之一的“徐市”, 353, 中華書局
- 蕭登福(1990). 《列子古注今譯》 제5권 〈湯問篇〉
- 「新唐書」. 卷二二〇. 東夷列傳

「舊唐書」.卷四十九志第二十五輿服志 및卷一九九東夷日本國傳

「日本書紀」.卷二十二. 推古天皇紀

「國朝典故」.卷一百三. 「日本國考略」 (明) 薛俊

「大日本史」.卷之一百七. 列傳第三十四. 阿知使主

## The earliest navigator in Northeast Asia

—Xu Fu

Liu Junguo

(Chinese Teacher , Welfare administration Department of Halla University)

2200 years ago, Xu Fu had crossed over to Japan, who is considered to be the earliest navigator in Northeast Asia. Most of us assume that Xu Fu went to the East China Sea just looking for not dead medicine to The First Emperor of Qin, this paper have a deeper thought that Xu Fu went to Japanese for immigrants and asylum. Xu Fu and Jeju's relationship are close, This article will analyze it from following aspects: How does the place name of Seogwi's origin from, Jeongbang waterfall's "Xu Fu comes through here" lettering, Halla Mountain, named from The Joseon Dynasty , has a former name called Yingzhou Mountain, as well as the founding themyth of the Tamna. All these informations show that Xu Fu and Jeju had a close relationship.

Key words : Halla Mountain, Yingzhou Mountain, Xu Fu, The Joseon Dynasty, Tamna, Seogwi